

문헌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黑釉大壺, 일명 Martaban Jar)에 대한 연구*

김 인 규**

I. 서 론

동남아시아의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전반 유럽인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후 동남아시아 각국의 고고학자 및 일본의 학자들에 의한 발굴과 유적의 조사로 베트남, 타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제작된 도자기에 대한 제반 상황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¹⁾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임을 밝힌다(NRF-2009-362-B00016). 이 논문의 출판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미얀마 흑유대호는 일명 마루타반(Martaban 또는 Martavan Jar) 으로 불린다. 마루타반은 현재 미얀마 목트마(Mouktama)를 지칭한다.

**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연구교수

1) Guy, J.S. 1989. *Ceramic Tradition of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Shaw, J.C. 1981. *Northern Thai Ceramics*. Kuala Lumpur, Malaysia: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R.M. 1988. *The Ceramics of South-East Asia :Their Dating and Identificatio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Sylvia Fraser-Lu. 1994. *Burmese Craft*.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하세베가꾸지(長谷部樂爾). 1995. 「東南アジア古陶磁研究の現状」. 『東洋陶磁』. 23-24. 東京:東洋陶磁學會 모리모또아사코(森本朝子). 1993. 「ベトナムの貿易陶磁 日本出土のベトナムを中心に」 『上智アジア學』 11. 東京: 上智大學アジア研究所.

현재 동남아시아의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요지, 소비유적, 침몰선의 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자기의 국적 및 시기의 해명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것을 토대로 도자기의 생산, 소비 및 무역시스템과 무역루트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²⁾

그리고 무역도자기로서 동남아시아의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시아 인근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에서 인양된 유물을 통하여 베트남 청화백자, 타이 청자, 미얀마 청자 및 흑유대호 등의 존재 및 공반(共伴) 등이 알려져 동남아시아 각국의 도자기가 무역도자기로서 아시아 전역에서 중국도자기와 대등할 정도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미얀마는 지정확적인 이유로 오래 전부터 인도양을 중심으로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지역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였고, 서아시아지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미얀마 마루타반(현재 목트마, Mouktama) 등의 항구를 중계무역으로 이용하였다.

미얀마는 이른 시기부터 도자기를 비롯하여 칠기, 직조와 염직, 금속기 등 전통공예가 발달하였고 이중 도자기는 14세기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수출된 베트남 및 타이 도자기보다 약 40-50년 이른 14세기 전반부터 인근 동남아시아와 원근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무역품 내지 교류품으로 반입되기에 이른 다.

미얀마의 도자기는 토기, 도기(녹유)를 비롯하여 청자, 흑유 등이 알려져 있고 독특한 조형과 문양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요지의 발굴 등이 196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제작시기, 제도(製

『世界陶磁全集 16 南海』. 1983. 東京: 小學館

2) Brown, R.M. 1975. "Preliminary report of the Ko Khram sunken ship". *Oriental Art* 21(4). 356-370.

陶)기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필두로 터키 톱카피(Turkey, Topkapi)미술관 및 이집트 푸스타트(Egypt, Fustat)유적 나아가 동아시아의 일본 유적등지에서 미얀마에서 제작된 청자와 흑유대호 등이 발견되어 교류 및 무역의 품목으로 미얀마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도자기중, 아시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미얀마의 흑유대호(일명 마루타반호)에 대해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흑유대호의 제작시기, 크기, 용도, 가격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및 동·서아시아의 유적에서 출토된 흑유대호의 일부를 제시하여 미얀마 흑유대호가 인도양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에 반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II. 미얀마 도자기

미얀마의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록산나 브라운(Brown R.M. 1988), 아드야트만(Adhyatman, S. 1985)등 유럽과 동남아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얀마 도자기는 토기를 비롯하여 백유, 녹채백색도기, 녹유도기, 청자, 흑유대호 등이 있다. 이러한 도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지만, 최근 일본 학자들이 미얀마 요지 및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서아시아의 각 유적에서 출토된 미얀마의 도자기를 조사·연구하여 무역도자기로서 미얀마의 존재와 위상 등이 드러내고 있다.⁴⁾

3) Aung Thaw. 1968. *Report on the Excavation at Beikthano*, Rangoon: Revolutionary Government of Union Of Burma, Ministry of Union Culture.

요지와 소비유적지에서 확인된 미얀마의 녹채백색도기, 청자, 흑유대호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⁵⁾

1. 녹채백유도기

미얀마의 도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녹채백유도기는 1984년 타이 탁(Tak) 메소트(Maesot)에서 발견되었다. 이 도기는 처음에는 타이와 미얀마의 국경에서 출토되어 타이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미얀마에서 동일한 종류의 타일이나 석탑의 도판이 확인되어 이러한 종류의 도자기는 최종적으로 미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이 도기에 대한 화학분석이 이루어져 납(연)의 성분이 미얀마 빼떼잉(Bassin) 광산의 연과 성분이 유사하여 이러한 도기는 미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⁶⁾

이 도기는 태토가 조질로 붉은 색을 띄고 있다. 유약은 유럽이나 서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된 주석을 함유하고 있는 연유(鉛釉)이다. 주석을 함유한 연유를 사용한 녹유가 바투(Batu) 지역의 불탑 등에서 발견되어 이러한 도기의 제작지는 양곤 근처의 버고(Bago)로 추정하고 있다. ⁷⁾

그리고 이러한 백유도기는 버고(Bago) 근처의 사원 슈에구지

4) 사사키타츠오(佐々木達夫). 2004. 「ミャンマー窯跡と採集陶磁器」, 『金澤大學考古學紀要』 27: 147-246

5) 미얀마에서 제작된 도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미얀마의 도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토기 및 자기의 출현과 발전과정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면 미얀마의 문화의 정체성과 타국과의 교류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6) Yamasaki, K. M. and Shaw, J. George. 1989. "A Technical Study on the White-glazed Wares with Green Patterns Excavated in the Tak Area in Thailand: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Siam Society* 77(2). Bangkok: The Siam Society

7) 하세베가쿠지(長谷部樂爾). 1990. 『インドシナ半島の陶磁器』 東京: 琉璃書房

(Shwegugyi)에서 동일한 유약을 쓴 도판이 발견되었다. 이 사원이 1478년에 창건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백유도기는 늦어도 15세기 후반에는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⁸⁾ 이러한 도기는 일본 사카이(堺環濠都市)의 16세기 후반의 층위에서 2점이 발견되고, 서아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주팔 유적 및 인도네시아 아체 등에서 발견되고 있어, 무역품으로 아시아 전역에 반입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⁹⁾ (그림 1)



그림 1. 미얀마 녹채백유도기, 16세기

2. 청자

미얀마의 청자에 대한 존재는 존쇼(J C Shaw)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고 그 요지가 돈바인에 의해 라검비(Lagumbee)에서 발견되

8)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2. 「クメール・タイ・ミャンマの陶磁」, 『東洋陶磁學會三十周年記念 東洋陶磁史 -その研究の現在-』, 東京: 東洋陶磁學會. 298

9) 사사키타츠오(佐々木達夫, 佐々木花江). 2002. 「アラビア半島にひろがるミャンマー青磁の發見」, 『金澤大學考古學紀要』 26.: 1-2

었다.¹⁰⁾ 이러한 미얀마의 청자는 태토가 조질로 유약은 회유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형은 완, 사발, 병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호, 반등이 뒤를 잇고 있다. 청자를 제작한 요지는 양곤의 남부의 탄테(Twante)와 버고(Bago) 에서 가까운 라검비 등이 알려져 있다.¹¹⁾

요지는 지상요로 연소실, 소성실, 굴뚝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졌고, 요벽은 진흙을 햇빛에 말려 만든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요벽은 아주 얇고 요의 중간에는 요벽을 받쳤던 기둥이 한 두개 받쳐져 있다.¹²⁾

요도구로는 갑발은 없고, 불길이가 잘 닿지 않는 요지의 바닥을 피해 보다 불길이가 잘 닿는 곳에서 도자기를 굽기 위한 봉 형태의 도침과 겹쳐서 구워진 도자기가 잘 떼어지게 한 요도구들이 보인다. 특히 봉 형태의 도침은 중국 남부의 요도구와 상당히 유사하여 중국 남부의 요도구가 미얀마의 청자의 요도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청자가 구워진 시기는 탄테(Twante)부근의 피야지(Phayagyi) 청자요지에 남아있는 자료를 C14 동위원소로 분석한 결과 1559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보다 이른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¹³⁾(그림 2)

10) Shaw, J. C. 1987. *Introduction Thai Ceramics also Burmese and Khmer*. Chiang Mai: Craftman.; Don Hein. 2003. *Archaeological Fieldwork at Myaung Bya, Bagan and other Sites in Myanmar*. Australia:Deaken University.

11)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ミヤンマ-施釉陶磁」. 『上智アジア學』 23:57.

12)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5: 57). 요벽이 얇은 것은 요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빨리 식는 것을 의미한다. 요의 온도가 빨리 내려가는 것은 청색을 띠는 제일산화철에서 황색을 띠는 제이산화철로의 변화를 막고 차가운 유색을 얻어내는 효과가 있다.

13)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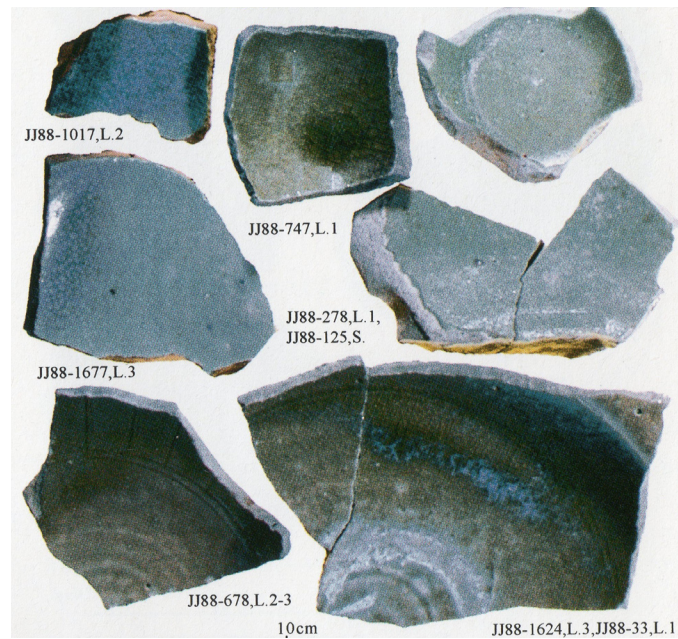


그림 2. 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 쥬파(Unted Arab Emirates Ras Al-Khaimah Julfar) 유적출토의 미얀마청자

3. 흑유대호

미얀마에서 생산된 일명 마루타반 항아리라고 불리는 흑유대호는 제작지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늦어도 14세기부터 무역도자기로서 서아시아지역에 상당수가 전래품과 발굴품으로 전해졌고, 일부는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지역에서도 확인된다.

흑유대호는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제작되고 있고, 크기는 60-70Cm의 것이 가장 많고 일부는 90Cm에 이르는 대형의 것도 존재한다. 태토는 철분이 섞인 갈색이고 유약은 흑갈색으로 저부를 제외하고 호의 전체에 시유되었다. 장식으로는 어깨주변에 귀가 3-4개가 달려

있고, 구연부, 어깨, 동체부분에 종횡(縱橫)의 한 줄 또는 두 줄의 백색선 사이에 백색점이 촘촘히 시문되어있다.

흑유대호를 제작한 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흑유대호를 제작하고 있는 요지는 기와로 만들어졌고 가마의 중간에는 불창이 마련되어있다. 요상에는 모래가 깔려져 있고 장애벽이나 단(段: 바닥을 약간 높이 올린 것)이 마련되어있지 않다.¹⁴⁾

흑유대호의 대표적인 예는 미얀마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터키 톱카피박물관(그림 3), 인도네시아(그림 4), 필리핀의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는 필리핀 인근해역에서 침몰한 스페인 샌디에고(1600년) 상선과 아프리카 서부해역 세인트 헬레나에서 침몰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위트 레우(Witte Leeuw, 1613) 상선에서 인양된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 수량적으로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집중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 소량만이 발견되고 있다.¹⁶⁾

14)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5: 58)

15) 사카이타카시(坂井 隆). 2008. 「陶磁の道を訪ねて」. 『出光美術館館報』 145:22 그림 32
Rijks Museum. 1991. *The Ceramic Load of The Witte Leeuw*, Amsterdam: Rijks Museum.

16) 중국에서 출토된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림3. 터키 톱카피박물관 소장
미얀마 흑유대호



그림 4. 인도네시아출토
미얀마 흑유대호

II. 문헌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된 호는 베트남, 타이, 미얀마에서 제작된 것 이외 중국이나 일본에서 제작된 것들이 알려져 있다.¹⁷⁾ 이중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마루타반항아리)는 14세기부터 제작되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도자기로서 생활 용기 및 무역도자기로서 동남아시아는 물론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널리 반입된다.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이븐 바투타(Ibn Battuta)가 쓴 여행기(*Rihla, The Journey*), 포르투갈 사람인 두아르트 바르보사(Duarte Barbosa, 1480-1521)가 1518년에 쓴 두아르트 바르보사의 책(*The book of Duarte Barbosa*), 장 후이겐 판 린쇼텐(Jan Huygen van Linschoten, 1562-1611)이 1596년에 쓴 동방안내기(東方案內記,

17)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고 있는 시유도기호에 대한 연구로는 S, Adhyatman. 1977. *Tempayan Martavans in Indonesia*. Jakarta: The ceramic Society of Indonesia.

Itinerario, Voyage ofte Schipvaert), 볼커(Volker, T)가 쓴 도자기와 네덜란드동인도회사(*The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s Recorded in the Dagh-registers of Batavia Castle, those of Hirado and Deshima and other Contemporary Paperm 1602-1682*)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⁸⁾

18) Duarte Barbosa. 1967. *The book of Duarte Barbosa: an Account of the Contries Bordering on the Indian Ocean and their Inhabitants*, written by Duarte Barbosa, Nendeln/Lichtenstein:Hakluyt Society.

린쇼텐(Jan Huygen van Linschoten),岩生成一(번역). 1968. 『東方案內記』. 東京:岩波書店.

Volker, T. 1971.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s Recorded in the Dagh-registers of Batavia Castle, those of Hirado and Deshima and other Contemporary Paperm 1602-1682*. Leiden:E.J. Brill.

1. 이븐 바투타(Ibn Battuta)의 여행기(*Rihla, The Journey*)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술은 이븐 바투타(Ibn Battuta, 1304-1368)가 1356년에 쓴 여행기에서 처음 확인된다. 이 여행기는 이븐 바투타가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돌아다닌 기록으로 이븐 주사이이(Ibn Juzayy, 1321-1356)가 편찬하여 1356년에 만든 것으로,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타왈리씨(Tawalisi)라는 나라에서 여왕을 만나는 장면에서 나온다.

여왕은 여러벌의 옷, 코끼리 두 마리분량의 쌀, 암컷 물소 2마리, 암컷 양 10마리, 마루타반호(Martabanat, 미얀마 흑유대호) 4개(이 항아리에는 항해 중에 사용될 생강, 후추, 레몬, 망고등이 소금에 절인 상태로 들어있다)를 나를 위하여 가져가도록 했다.¹⁹⁾

이러한 이븐 바투타에 보이는 흑유대호의 기술은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마루타반 항아리)가 늦어도 이 책이 쓰여진 14세기 중엽에는 제작된 것을 알려주고, 소금에 절인 음식물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븐 바투타의 기술에서 알 수 있듯, 미얀마의 흑유대호가 14세기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최근 동남아 인근의 바다에서 침몰된 선박에서 인양되거나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유적에서 발굴된 흑유대호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의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미얀마 흑유대호의 시원과 교류품과 무역품으로서 역할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븐 바투타의 기술에서는 미얀마의 흑유대호가 14세기

19) 바트타 이븐. 2001. 『大旅行記』 6. 이븐즈유자이編. 家島彦一(번역). 東洋文庫 東京: 平凡社. 2001. 413-414

중엽에 제작되어 인도네시아에 반입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가 14세기 중엽에 이미 무역도자기로서 동남아시아에 널리 반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얀마 흑유대호가 교류품 내지 무역품으로 널리 애용된 배경에는 14세기 중엽, 중국과 서아시아의 중계무역항인 미얀마의 마루타반(Martaban, 현재 목뜨마Mouktama)을 중심으로 중국과 서아시아지역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중국에서 제작된 청자와 청화백자가 서아시아지역에 많은 양이 반입되고 서아시아의 무역품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수출되었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미얀마의 흑유대호가 14세기 중엽이전 14세기 전반에 이미 제작되어 동아시아에 반입되었을 가능성은 1323년 전라남도 신안 앞 바다에서 침몰한 중국 무역선에서 나온 흑유대호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²⁰⁾

이 침몰선에 인양된 흑유대호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정설이 없지만, 만약 신안에서 출토된 흑유대호가 미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미얀마에서 제작된 마루타반호는 늦어도 14세기 전반에 제작되어 인도네시아-필리핀-중국영과-전라남도 신안-일본을 목적지로 한 중국무역선에서 소금에 절인 반찬 등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20) 『신안해저문화』, 1977.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21) 전라남도 신안에서 침몰된 중국 무역선은 인양된 죽간(竹簡)을 통해 중국도자기를 의뢰한 일본을 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두아르트 바르보사(Duarte Barbosa, 1480-1521)의 두아르트 바르보사의 책(*The book of Duarte Barbosa*)

그리고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포르투갈 사람인 두아르트 바르보사(Duarte Barbosa, 1480-1521)가 1518년에 쓴 두아르트 바르보사의 책(*The book of Duarte Barbosa*)라는 책에서 페구 또는 버고(Pegu or Bago)에서 말라카(Malacca)로 향하는 도중에 방문한 마루타 반 항구에 대하여 소개한 부분에서 보이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커다랗고 튼튼한 아름다운 도자기가 대량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 물을 가득 넣을 수 있는 것도 있다. 그것들은 흑유가 발라져 있고 무어(Moors)인들 사이에는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져 비싼 가격이 매겨졌고 그들은 이러한 호에 덩어리로 된 안식향(安息香)을 많이 넣어 돌아갔다.²²⁾

위의 내용에서 1518년경 미얀마 마루타반에서 제작된 흑유대호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인 무어인들 사이에게 귀중하게 여겨져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호에 안식향을 넣어 서아시아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이와 같이 미얀마의 흑유대호는 16세기 전반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이슬람상인인 무어인들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를 거쳐 필리핀지역으로 반입되어 현재 유물의 일부가 이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²⁴⁾

22) Duarte Barbosa(1967: 157-159) 안식향은 스타이락스 벤조인(*Styrax Benzoin*) 또는 같은 속(屬)의 나무를 상처내서 얻어낸 수지(樹脂)이다. 이 안식향은 타이, 라오스, 베트남의 고원지대에서 채취되면 식품의 첨가제 등으로 사용된다.

23)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5: 65)

24) Cynthia, O. Valdes. "Martaban Jars found in the Philippines". *Art of Asia* 22(5): 63-75

3. 린소텐(Jan Huygen van Linschoten, 1562-1611)의 동방안내기(*Itinerario, Voyage ofte Schipvaert*)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네덜란드인 얀 후이젠 판 린소텐(Jan Huygen van Linschoten, 1562-1611)이 쓴 『동방안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린소텐이 1583년부터 1589년까지 인도를 여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1596년에 쓴 것으로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진출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 책에는 마루타반항아리(미얀마 흑유대호)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마루타반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마루타 바나로 불리는 커다란 호가 활발히 만들어졌고 항해 중에 대량으로 (국외로) 보내졌다. 이것은 큰 것과 작은 것등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중에 많은 양의 액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것도 있다. 이러한 호가 많이 수출되었던 이유는 바루타반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의 각 가정이나 선박에서는 이 항아리에 기름, 술, 물 기타 등을 저장했기 때문이다. 이 호에 물이나 술등을 저장해 두면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특히 여행자들에게는 이 호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호는 포르투갈에도 많이 반입되었다. 항해에서 물이나 기름등을 저장하는 것에 쓰였기 때문이다.²⁵⁾

이 책은 16세기 후반 마루타반을 중심으로 중계무역을 한 포르투갈인들의 역할과 그들의 생활상등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첫째로 16세기 후반 포르투갈인과 그 가족들이 마루타반에 상주한 사실이다. 이것은 1519년 마루타반에 포르투갈 상관이 설치되어 1613년까지 거의 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특히 1580년대에 마루타반에 상주하는 포르투갈인들이 마루타반을 애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²⁶⁾

25) 린스호텐. 岩生成一(번역). 1968. 『東方案内記』. 東京:岩波書店. 182-183

둘째로 마루타반에 상주하는 포르투갈인이 마루타반 항아리를 기름이나 술을 저장하기 위한 용기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마루타반을 거점으로 중계무역을 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당량의 마루타반 항아리를 본국인 포르투갈이나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에 무역품으로 반입시켰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루타반에서 포르투갈 상관이 유지된 16세기 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인도양을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과 활발한 교역을 하고 중계무역항으로 이용한 미얀마 마루타반에서 흑유대호를 대량으로 입수하고 다시 그것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그리고 일본 등에서 되팔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반입된 마루타반호는 인도네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동아시아에서는 포르투갈과 교역을 했던 일본의 서부지역에서 일정량이 발굴되고 있다.²⁷⁾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전해지고 있는 16세기 후반의 흑유대호는 포르투갈의 상선을 통해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중국→) 일본 등에 전해지게 된다.

그러나 미얀마에 1595년 미얀마에 페스트가 유행하고 1600년의 전란과 이후 기근이 겹치는 16세기말과 17세기초반에는 미얀마 흑유대호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루타반 역시 중계항으로 역할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해 이 시기에 미얀마 흑유대호는 포르투갈의 상인에 의해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로 반입되었을 가능

26) 미얀마와 포르투갈의 교역은 마루타반에 포르투갈 상관이 설치되는 1519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포르투갈 상관은 지속되다가 1613년에 폐쇄된다. 린스텐이 동방안내서를 쓴 1596년은 중국 명이 해금정책을 해소되어 동방(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산물과 서방(서아시아 및 유럽)의 문물 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활발한 동서교역을 토대로 16세기 후반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지역으로 반입되고 한편으로 인도를 거쳐 서아시아 및 유럽으로 확장되기에 이르게 된다.

27) Nan, Kyi Kyi Khai. 「The study of Myanmar trade ware: Martaban jar and white dish」. 『金澤大學考古學紀要』 30:107-108.

성이 희박하다.²⁸⁾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16세기말과 17세기에 일본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흑유대호가 전래품이나 발골품에서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폴커(Volker, T.)의 저서 도자기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The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만들어진 폴커의 저작 도자기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The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에서 자주 보인다. 이 책은 1610년부터 1680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거래한 품목 및 수량과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17세기 아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진 무역품의 종류와 가격 그리고 중계무역항을 통한 무역루트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무역품으로 취급된 상품 중의 하나로 중국도자기, 일본도자기, 동남아시아도자기에 대한 언급이 다수 등장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미얀마에 제작된 흑유대호에 대한 언급은 책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 폴커의 저작에서 보이는 미얀마의 흑유대호에 대한 기술을 토대로 크기, 가격, 용도 및 아시아전역으로 반입된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크기

폴커의 저작에는 흑유대호에 대한 정확한 크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흑유대호를 크게 대, 중, 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을 1642년, 1660년, 1661년 등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8) Guillon, Emmanuel. Translated and edited by Di Crocco, James V. 1999. *The Mons: A civilization of southeast Asia*. James V. Bangkok: The Siam Society. 194.

1642년 코로만델(Coromandel) 해안 북쪽의 마슬리파탐(Masulipatam)의 보고에 따르면 버고(Bago)에서 대형 200 소형 150개의 마루타반 항아리가 마슬리파탐 지역의 배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미얀마의 흑유대호는 대형과 소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²⁹⁾

그리고 흑유대호에는 대형과 소형이외 중형의 것이 존재했다는 것은 1660년 팅리인(Syium, 양곤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마슬리파탐에 도착하는 배에 65개의 대, 중 크기의 흑유대호가 적재되었다는 기술과 1661년 떠닝타이(Taninthari, 양곤 남부)에서 수라트(Surat)로 향한 배에 65개의 대, 중의 흑유대호가 적재되었다는 폴커의 저서의 언급을 통해 흑유대호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흑유대호는 대, 중, 소로 크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그리고 흑유대호의 종류와 크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흑유대호의 예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대형의 것은 80-90cm, 중형은 70-60, 소형은 60cm이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형의 대표적인 예는 미얀마 탄페 지역에서 발굴된 호로 크기가 90cm이상 이다.³¹⁾ 중형은 인도네시아, 서아시아, 일본 등에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다.³²⁾(그림 5) 소형은 50cm 이하의 것으로 소량에 그치고 있고 개인 물통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9) Volker, T.(1971: 93)

30) Volker, T.(1971: 77, 109)

31) 미얀마 탄페(Twante)의 니조다온(Nijodayon) 수도원에서 발견된 흑유대호는 높이가 90cm로 대형이다.

32) 일본 오이타 오모토후나이쵸에서 나온 미얀마 흑유대호(大分市教育委員會. 2002. 『大友府内 5』. -中世大友府内町跡3次調査報告大分驛周辺総合整備事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I-.Oita: 大分市教育委員會)는 1586년의 층위에서 출토되었고 높이는 61.2cm로 중형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일본 오이타출토 미얀마 흑유대호 1580년경

(2) 가격

폴커의 저작이 회계장부를 토대로 만들어져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책에는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³³⁾ 이러한 흑유대호의 가격은 흑유대호의 가치는 물론 책이 쓰여졌던 당시의 흑유대호의 수요와 공급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1629년을 시작으로 1667년까지 흑유대호의 가격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폴커의 저서에 언급된 1629년 반다(Banda)로 부터 보고에 의하면 태풍으로 12 네아루(30 플로린³⁴⁾)의 흑유대호가 깨졌다고 적어 넣고 있어,³⁵⁾ 1629년 당시 미얀마산의 흑유대호가 30 플로린 정도의

33) 폴커의 저작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에는 미얀마 흑유도자기 이외 중국 및 일본 그리고 베트남도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이 매겨져있어 17세기 아시아 각국의 도자기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그의 저작에 보이는 도자기 유통 및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17세기 무역도자기 교류 및 사회 및 경제사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4) 플로린(Florin)은 네덜란드 조합인들이 주로 사용한 화폐이다.

35) Volker, T.(1971: 195)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1646년 미얀마 흑유대호의 가격은 마슬리파탐에서 바타비아(Batavia)로 행한 배에서 60개의 마루타반 항아리가 적재되었고 그 가격이 총 1485 플로린이라고 적혀져 있어,³⁶⁾ 마루타반 항아리 1개의 가격이 24.8플로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650년 푸리카트에서 바타비아로 향한 배에 24개의 흑유대호가 적재되었고 총 가격은 192플로린으로,³⁷⁾ 흑유대호 1개의 가격이 8 플로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51년 푸리카트(Pulicat) 및 마슬리파탐에서 바타비아로 행한 배에 8개의 대형의 흑유대호가 적재되었고 총 가격은 64 플로린으로,³⁸⁾ 흑유대호 1개의 가격이 8 플로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667년 20개의 흑유대호의 총 가격이 279 플로린으로,³⁹⁾ 1개의 흑유대호의 가격이 18플로린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는 1620년대 말에는 30 플로린, 1640년대에는 24 플로린, 1650년대에는 8 플로린으로 시대가 내려오면서 흑유대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의 하락의 배경에는 크기 및 질적이 차이가 다수 있을지라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665년에는 흑유대호 600개가 한 번에 적재되었다는 기록을 통하여⁴⁰⁾ 17세기 중엽에는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흑유대호의 가격은 약간의 질적인 차이도 감안해도 당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1650년대를 계기로 공급이 서서히

36) Volker, T.(1971: 103)

37) Volker, T.(1971: 105)

38) Volker, T.(1971: 106)

39) Volker, T.(1971: 181)

40) Volker, T(1971: 181)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질이 떨어져 흑유대호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미얀마 흑유대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에 가장 질이 좋아 값이 비쌌고, 흑유대호가 양산되는 17세기 중엽이후 질이 떨어지고 가격 역시 16세기말의 1/3까지 밀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용도

미얀마 흑유대호는 폴커의 저서에서 1610년 반탐(Bantam, 바타비아 서쪽)에서 암보이나섬 및 반다로 향하던 배의 송장에 아편을 넣은 흑유대호가 두 점이 보여 흑유대호가 아편을 배로 수송하기 위한 저장용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⁴¹⁾

그리고 1644년 말라카(Malacca)의 외국상선 및 외국인거류자의 감독자였던 한 한즈 메니(Jan Jansz Menie)가 죽어 그의 재산을 공매한 품목에 미얀마의 흑유대호가 12개 포함되어있고, 그 중 5개의 흑유대호에는 소금이 들어있고 또 다른 2개의 흑유대호에는 설탕이 적재되었다고 기재되어, 흑유대호는 소금과 설탕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⁴²⁾ 그리고 1678년 버고에서 200개의 대형 흑유대호 그리고 23개의 중형 흑유대호에 나무에서 얻은 기름이 채워져서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³⁾

이와 같이 흑유대호는 1610년에 아편의 용기로 사용되었고, 1640년 이후에는 소금이나 설탕용의 항아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흑유대호의 생산이 확대되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1660, 70년에는 흑유대호가 가정에서 물이나 기름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미얀마 국립박물관 소장의 흑유대호에는 호의 어깨주변에 기부자인 마웅타야(Maung Thar Ra) 와

41) Volker, T(1971: 194)

42) Volker, T(1971: 95)

43) Volker, T(1971: 95, 215)

마카(Ma Khar)의 안녕을 빈 명문(銘文)이 보여 부장용의 제기(祭器)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⁴⁴⁾

이러한 흑유대호는 스코틀랜드 항해사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A New Account of the East Indies*라는 책에서 미얀마 흑유대호에 2 호구스베도의 술을 넣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어,⁴⁵⁾ 미얀마 흑유대호는 18세기 전반까지 제작되어 술을 담기 위한 용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20년 마루타반 항이 돌로 메워지고 커다란 배가 왕래할 수 없게 되면서 마루타반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계무역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고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 역시 국외로의 반출이 거의 어렵게 된다.

V. 결 론

미얀마는 이른 시기부터 토기를 비롯하여 도기, 자기 등 다양한 도자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자기를 비롯한 전통공예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아 민족의 이동과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토기와 자기 등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얀마의 도자기에 대한 연구는 무역도자기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일부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서아시아 및 동아시아유적에서 발굴되어 무역도자기로서 미얀마의 도자기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명확히 알려지게 되었다.

미얀마의 무역도자기는 흑유대호, 청자, 녹채백유도자기 등이 알

44) Nan, Kyi Kyi Khai. 2009. 「The Study on Myanmar Trade Ware: Martaban Jar and White Dish」 『金澤大學考古學紀要』 30: 129 그림 10-c

45) 미카엘(Smithies, Michae). 1997. *Alexander Hamilton: A Scottish Sea Captain in the Southeast Asia, 1689-1723*. Bangkok: Silkworm: 37-38.

려져 있다. 이중 미얀마 흑유대호는 미얀마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조형과 제작기법 그리고 무역도자기로서의 역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연구는 미얀마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의 유적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제작 및 반입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반입루트 등에 대한 정확한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서아시아나 유럽인들이 쓴 여행기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회계장부등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록은 흑유대호의 출현과 전개과정 및 무역도자기로서의 역할 나아가 타국으로 반입루트 등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미얀마 흑유대호에 대한 기술이 보이는 문헌으로는 이븐 바투타(Ibn Battuta)의 대여행기(*Rihla, The Journey*) 두아르트 바르보사(Duarte Barbosa)가 쓴 두아르트 바르보사의 책(*The book of Duarte Barbosa: A Account of the Contries Bordering on the Indian Ocean and their Inhabitants*), 장후이겐 판 린소텐(Jan Huygen van Linschoten)이 쓴 동방안내기(*Itinerario, Voyage ofte Schipvaert*), 폴커(Volker, T.)가 쓴 도자기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등이 있다.

이러한 문헌에 보이는 미얀마 흑유대호의 기술은 미얀마 흑유대호의 출현 시기 및 종류와 가격, 용도 등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미얀마의 흑유대호의 출현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서 흑유대호의 존재가 확인되어 이 책이 쓰인 14세기 중엽에는 이미 미얀마 흑유대호가 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1323년 전라남

46) 일본에서 오이타 오토모 유적에서 발굴된 미얀마 흑유대호는 1580년대의 층위에서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미얀마 흑유대호의 제작시기 및 반입경로를 추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등지에서 발굴된 미얀마의 흑유대호는 반입 및 제작연대는 분명하지 않아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도 신안해저에서 침몰된 중국배에서 인양된 유물 중에 미얀마의 흑유대호가 보여 미얀마의 흑유대호는 늦어도 14세기전반에 출현되어 그 일부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에서 인양된 중국선박은 발굴된 죽간(竹簡)을 통하여 중국 영파를 출발하여 한국의 연안을 거쳐 일본으로 향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14세기 전반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 상선에 의해 이루어진 무역에서 중국 영파→한국→일본의 루트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 신안에서 침몰된 중국선박에서 인양된 흑유대호의 존재는 중국 상선이 영파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전 지역을 통괄하고 나아가 서아시아와의 중계무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 미얀마에서도 활발한 무역활동을 했던 증거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원(元)이 망하고 명(明)이 들어서 해금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상선에 의한 동남아시아 및 서방과의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미얀마에서 제작된 흑유대호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 반입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미얀마 흑유대호는 명대의 해금정책이 유지되는 유예기간을 거쳐 포르투갈 상관이 미얀마에 설치되는 1519년 전후부터 포르투갈의 무역선에 의하여 다시 유럽 및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등지로 반입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미얀마의 흑유대호의 예가 터키 톱카피 박물관 및 일본 서부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다시 미얀마에서 포르투갈의 상관이 폐지되는 1613년 전후에 미얀마 흑유대호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지만, 포르투갈을 대신하여 네덜란드 상관이 동남아시아에 설치되는 1603년 전후에 미얀마

흑유대호는 네덜란드 상선에 의해 유럽 및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널리 반입되기에 이르고 17세기중엽에는 그 반입량이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된다. 시기에 따른 미얀마의 흑유대호를 취급한 상선, 반입지역, 대표적인 흑유대호의 예를 간략한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미얀마 흑유대호의 반입상황

시 기	상 선	반입 지역	대표적인 예
14세기전반- 14세기중엽	중국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전라남도 신안출토 흑유대호(1323년경) 미본 바투타에 기술 된 흑유대호(14세기 중엽)
16세기전반- 17세기전반	포르투갈	유럽,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일본)	터기 톱카피 박물관 소장 흑유대호 일본 오토모출토의 흑유대호(1580년경)
17세기전반- 18세기후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유럽,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중국, 일본)	

그리고 문헌을 통해 본 미얀마의 흑유대호는 크기에 따라 대, 중, 소의 것이 존재하였고 대형은 저장용기로, 소형은 개인 휴대용의 물병으로 사용된다. 흑유대호의 가격은 시대에 따라 추이를 보인다.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지 않았던 16세기말과 17세기전반의 흑유대호의 가격은 30 프로린이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17세기 후반에는 가격이 8 프로린으로 16세기말과 17세기전반의 흑유대호의 가격에 비하여 1/3의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 흑유대호는 17세기 중엽이후 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대폭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흑유대호를 용도면에서 보면 1620년에는 아편, 1640년대에는 소금이나 설탕의 저장용기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흑유대호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흑유대호는 물이나 기름 등 일상용기로 널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미얀마 흑유대호(마루타반 항아리), 이븐 바투타, 두아르
트 바르보사, 안후이젠 판 린쇼텐, 폴커

〈참고문헌〉

- 『신안해저문물』. 1977.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삼화출판사.
- Adhyatman, S. 1977. *Tempayan Martavans in Indonesia*. Jakarta: The ceramic Society of Indonesia.
- Adhyatman, S. 1985. "Burmese Ceramics". *The Ceramics Society of Indonesia, Bulletin* May 1985.
- Alexander Hamilton. 1930. *A New Account of the East Indies*. London: Argonaut
- Aung Thaw. 1968. *Report on the Excavation at Beikthano*, Rangoon: Revolutionary Government of Union Of Burma, Ministry of Union Culture.
- Brown, R.M. 1975. "Preliminary report of the Ko Khram sunken ship". *Oriental Art* 21(4). 356-370.
- Brown, R.M. 1988. *The Ceramics of South-East Asia : Their Dating and Identification*.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Cynthia, O. Valdes. "Martaban Jars found in the Philippines". *Art of Asia* 22(5): 63-75

- Duarte Barbosa. 1967. *The book of Duarte Barbosa: an Account of the Contries Bordering on the Indian Ocean and their Inhabitants*, written by Duarte Barbosa, Nendeln/Lichtenstein: Hakluyt Society.
- Guy, J.S. 1989. *Ceramic Tradition of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Guillon, Emmanuel. Translated and edited by Di Crocco, James V. 1999. *The Mons: A civilization of southeast Asia*. James V. Bangkok: The Siam Society. 194.
- Nan, Kyi Kyi Khai. 「The study of Myanmar trade ware: Martaban jar and white dish」. 『金澤大學考古學紀要』 30: 107-108.
- Rijks Museum. 1991. *The Ceramic Load of The Witte Leeuw*, Amsterdam: Rijks Museum.
- Volker, T. 1971.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s Recorded in the Dagh-registers of Batavia Castle, those of Hirado and Deshima and other Contemporary Paperm 1602-1682*. Leiden: E. J. Brill
- Shaw, J. C. 1987. *Introduction Thai Ceramics also Burmese and Khmer*. Chiang Mai: Craftman.
- Shaw, J.C. 1981. *Northern Thai Ceramics*. Kuala Lumpur, Malaysia: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ies, Michae. 1997. *Alexander Hamilton: A Scottish Sea Captain in the Southeast Asia, 1689-1723*. Bangkok: Silkworm.
- Sylvia Fraser-Lu. 1994. *Burmese Craft*.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Yamasaki, K. M. and Shaw, J. George. 1989. "A Technical Study on the White-glazed Wares with Green

Patterns Excavated in the Tak Area in Thailand: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Siam Society* 77(2). Bangkok: The Siam Society

린쇼텐(Jan Huygen van Linschoten), 岩生成一(번역). 1968. 『東方案內記』. 東京: 岩波書店.

모리모토아사코(森本朝子). 1993. 「ベトナムの貿易陶磁 日本出土のベトナムを中心に」 『上智アジア學』 11.

東京: 上智大學アジア研究所.

바투타, 이븐(バトタ イブン). 2001. 『大旅行記』 6. 이븐즈유자이編. 家島彦一(번역).

東洋文庫 東京: 平凡社 2001. 413-414

『世界陶磁全集 16 南海』. 1983. 東京: 小學館

사사키타츠오(佐々木達夫, 佐々木花江). 2002. 「アラビア半島にひろがるミャンマー青磁の發見」. 『金澤大學考古學紀要』 26. :1-2

사사키타츠오(佐々木達夫). 2004. 「ミャンマー窯跡と採集陶磁磁」, 『金澤大學考古學紀要』 27: 147-246

사카이타카시(坂井 隆). 2008. 「陶磁の道を訪ねて」. 『出光美術館館報』 145:22

오이타교육위원회(大分市教育委員會). 2002. 『大友府内 5』. -中世大友府内町跡3次調査報告大分驛周辺総合整備事業に伴う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 I-. Oita: 大分市教育委員會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2. 「クメール・タイ・ミャンマの陶磁」, 『東洋陶磁學會三十周年記念 東洋陶磁史 -その研究の現在-』. 東京: 東洋陶磁學會

쓰다타케노리(津田武徳). 2005. 「ミャンマ-施釉陶磁」. 『上智アジア學』 23:57.

하세베가꾸지(長谷部樂爾). 1990. 『インドシナ半島の陶磁器』 東京:
琉璃書房

하세베가꾸지(長谷部樂爾). 1995. 「東南アジア古陶磁研究の現状」.
『東洋陶磁』. 23·24. 東京: 東洋陶磁學會

(2011. 04. 19 투고; 2011. 05. 25 심사; 2011.06. 23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Large Black Glazed Jar of Myanmar(Martaban Jar) in the Documents

Kim, Ingyu

(ISEA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ottery and porcelain of Myanmar is very various such as Celadon, Black glazed large Jar and White glazed Jar painted Green Colour. In these Myanmar Ceramics, Black glazed large Jar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 and Role of Myanmar Ceramics.

The description on the Black glazed large Jar of Myanmar is seen in several Books such as a travel essay of Ibn Battuta, Duarte Barbosa, The book of Duarte Barbosa: A Account of the Countries Bordering on the Indian Ocean and their Inhabitants, Jan Huygen van Linschoten, Volker, T.,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hese descriptions on the Black glazed Jar in these Books are important evidence to discover the existence of it and its Types and Price and Use.

The appearance of Black glazed Jar of Myanmar is considered in the Middle of 14C with the description of the Book of Ibn Battuta. Furthermore, Excavated from the Shipwreck of China in the Sinan, Chellanamdo, it is certain that the Black glazed large Jar was already existed in the early of 14C.

And it was considered that the Shipwreck of China in the Sinan, Chellanamdo was started from Ninbo(寧波) of China to the destination of Japan with the Inscription made Bamboo. So we know that The route of Ninbo→Korea→Japan is very important in the Trade Ceramics of East Asia in 14C.

And The size of Black glazed Jar has 3 types, Large, Middle and Small. The large type is used as a Tools for Water and Oil. The small type is the personal bottle for drinking. The Price of Black glazed Jar of Myanmar was changed as times go by. The price of the late of 16C and the early of 17C is 30 prolin and the late of 17C is 8 Prolin. The price of the Black glazed Jar of Myanmar in the late of 16C and the early of 17C is estimated 3 times for the price of the late of 17C. and This change of the price of Myanmarese Black Glazed Jar is decided on the Demand and Supply.

and the Black glazed Jar of Myanmar was mainly used for the tools for Morpin in the year of 1620 and for Salt and Sugar in the year of 1640 and for Water and Oil in the late of 17C.

Keyword: Myanmar, Martavan Jar, Ibun Battuta, Duarte Barbosa, Jan Huygen Van Linschoten, Volker. T.